

◎ 다음 주 기도/ 이연호 장로

주일 오후 찬양예배

- 코로나19 로 당분간 드리지 못합니다.-

수요 밤 예배

저녁 7:30 인도: 홍순용 목사

목도 ----- 다 같이
찬송 ----- 430 장 ----- 다 같이
기도 ----- 유영순 시무권사
성경봉독 ----- 막 8:27-9:1 (p. 신약 67) ----- 인도자
설교 --- "십자가의 길, 우리의 길" --- 홍순용 목사
찬송 ----- 461 장 ----- 다 같이
기도 ----- 인도자
주기도문 ----- 다 같이

*다음 주 기도: 김영희 시무권사

새벽기도회

오전 5:00 인도: 홍순용 목사

말씀: 시편 1권 강해

금요 밤 예배

- 코로나19 로

당분간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 / 봉사위원

7월	안내 및 헌금 위원	교회 정문		1층 현관		본당 입구		예배실	
		민동수 집사	정민미 집사	김현철 시무집사	김진숙 시무권사	배금환 시무집사	김영희 시무권사	김경숙 시무권사	정옥자 시무권사
		계수		봉헌					
		최현철 / 김수길		1부 윤대원 시무집사		2부 배금환 시무집사			

향기로운 예물

임일조	김영광(정옥자) 신수남(한경희) 장정국(홍영숙) 최흥기(김영희) 하상신(채영림) 김경숙 김호선 김효선 박상철 박현선 양수연 오미영 윤대원 조영미 최현주 최현철 한용숙 황호준
감사헌금	도기중(김행자) 정옥자 최현철 한옥숙
생일감사	하다솜
선교헌금	김영광 김영희 김행자 박상철 오미영 이 훈 장정국 정옥자 조영미 채영림 최현철 최흥기 하상신 황호준 홍영숙
건축헌금	김영광 김영희 박상철 오미영 이 훈 장정국 조영미 최현철 최흥기 홍영숙
장학헌금	이병희 최현철

※교회 헌금 온라인 번호: 농협 100051-51-074600 (예금주: 동산교회)

※헌금자 명단에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번주 중식헌금

- ① 김순호 시무장로(박옥란 시무권사)님 가정 (바드림창립기념 감사)
- ② 김미한 집사님 가정 (이수는 생일감사)

[2021년 성경읽기]

1독: 김길자 권사 (1독)	2-3독: 이옥주 집사 (2독)	4독: 김길자 권사 (2독)
5독: 김길자 권사 (3독)	6독: 장정국 장로 (1독)	7독: 이병희 장로 (1독)
8독: 박영희 권사 (1독)	9독: 정옥희 권사 (1독)	10독: 김귀숙 권사 (1독)
11독: 김경숙 권사 (1독)	12독: 이순자A 권사 (1독)	13-17독: 김길자 권사(8독)

주/간/말/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본문: 계 21:1-8)

우리는 지난시간 17-20장을 통해 바벨론과 짐승들과 사탄과 불신자들의 최후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다(1-2).
1절에서는 "새로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새로운"을 "new"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써서 "갱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new"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는 "네오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카이노스"를 사용하여 "갱신된 하늘, 갱신된 땅"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보시기 심히 좋았기에 그대로 유지하며 갱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그대로 있으나 갱신된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지구에서 완성되게 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특징은 "거룩한 성",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이라는 표현을 집중해야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규모가 아니라 거룩합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라 단장한 것입니다.

2.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계서 위로하시다(3-4).
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거주함에 대해서는 에스겔 40-48장의 성전 예대한 증거들의 전장에서 에스겔 43:7에서 주어진 약속이 요한계시록 21:3절에서 성취되고 반영되어 집니다. 레위기 26:11-12절의 말씀과 서로 연결되며 그 레위기의 언약이 오늘 본문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는 죄와 사탄과 짐승들과 타락한 큰 성 바벨론이 없는 세상에서 완전하게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고 백성에게 복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받는다(5-8).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세상이지만 처음 창조의 만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형태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새로워진 지구, 갱신된 지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통해, 생명나무를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다 공짜로 누리며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상속의 자격이 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언약관계에서 순종하는 백성이 아들의 자격을 부여받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불 못에 던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임을 알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8가지 외에 여러 가지 죄로 인해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하게 살아갑니다. 8가지의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결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